

이청준의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 나타난 지식인 남성주체의 젠더의식

: 독신 직장여성의 '몸' 이미지를 중심으로

김성경*

차례

1. 독신 직장여성 혐오의 정동 : 현실층위(개발주의 비판)와 환상층위(독재비판)의 교차점
 - 2.1. 개발주의 시대, 언론의 상업화에 따른 셸러리맨 기자의 탄생
 - 2.2. 전통과 근대의 혼종적 젠더의식과 독신 직장여성 혐오
3. 젠더 갈등에 대한 대응 방식
 - 3.1. 왜곡된 섹슈얼리티 : 젠더갈등과 지식인 남성주체
 - 3.2. 입 없는 몸 : 젠더 갈등과 화이트칼라 여성주체의 침묵
4. 나가며: 지식인 남성주체의 후레이아-현모양처에서 이탈된 하위주체인 독신 직장여성에 대한 공포와 배제

〈국문초록〉

이청준의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은 196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다. 이 소설은 현실층위와 환상층위의 서사가 교차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를 비판하고 있다. 이청준은 1966년에 사상계에 입사했다가 1967년에 여원으로 옮기는 선회가 큰 행보를 보이는데 소설은 내외(사상계)와 새여성(여원)을 통해서 이 무렵의 자전적 경험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요 사건은 현실 층위에서는 작가의 분신인 '나'의 새여성사 사직이고 환상 층위에서는 신문관의 출현(신문, 선고)이다. 주인공화자는 이 두 사건의 결정적 계기가 새여성의 노처녀 베테랑 직원인 미스 염의 거드랑이에 대한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혐오감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강조한다. 이는 유능한 독신 직장여성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여성 집단과의 접촉에서 오는 지식인 남성주체의 혼란과 불안을 반영한다. ‘나’에게 이 혐오감은 아직은 의식이나 문화의 회로에 잡히지 않은 채 직접 몸으로 내려가 형성되는, 순간적인 느낌만이 생생한 그런 정동인 것이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독신여성 혐오의 정동은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성과주의, 개발주의에 대한 저항과 착종됨으로써 더욱 문제적인 정동의 정치학을 보여준다.

핵심어 : 몸 이미지 정동 독신직장여성혐오 사상계 여권

1. 독신 직장여성 혐오의 정동 : 현실층위(개발주의 비판)와 환상층위(독재비판)의 교차점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은 반공동원과 개발동원이 촘촘히 얽혀 나가던 1960년대 후반의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작가 이청준의 자전적 경험을 그려내고 있다.¹⁾ 이청준은 대학 4학년 재학 중인 1965년에 사상계 신인 문학상에 『퇴원』이 당선되어 소설가로서 데뷔했다. 그 후 1966년 졸업과 동시에 사상계에 입사했다가 1967년에 여원으로 옮긴 지 1년 만인 1968년에 월간 아세아지 창간에 합류했다.²⁾ 2년이란 단기간 동안에 진보적 정론지(政論誌)에서 주부대상 여성지로의 이직, 그리고 새로운 잡지사의 창간 참여라는 선회가 큰 행보는 작가의 정신적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이청준은 작가의 분신인 주인공 화자를 통해 이 무렵의 경험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정론지 <<내외>>는 <사상계>를, 여성잡지 <<새여성>은 <여원>을 가리킨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예컨대 7만부를 자랑하던 내외의 부수가 4만부로, 다시 2만부로

1) 이청준, 「작가의 노트(1994.가을)」,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열림원, 2001.

2) 작가연보, 『작가세계』, 세계사, 1992 가을, 51~52쪽.

감소되다가 급기야 2천부가 되었다는 진술³⁾은 사상계의 판매부수 감소와 일치한다.⁴⁾ 또한 내외에서 새여성사로 옮긴 후 1년만에 퇴직하는 설정도 사상계에서 여원으로 옮겼다가 1년 만에 월간 아세아 창간에 참가한 이청준의 행보와 일치한다. 다만, 문단 데뷔의 시점만 바뀌었을 뿐이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는 이러한 자전적 내용이 개인의 사적 삶의 차원에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이청준은 이 소설에서 현실층위의 서사를 날실로 환상층위의 서사를 씨실로 교직해 나가는 전략을 통해 개발독재에 저항하는 방대한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⁵⁾ 이 소설의 주요 사건은 현실 층위에서는 《새여성》 사직이고 환상 층위에서는 신문관의 출현(신문, 선고)이다.⁶⁾ ‘나’는 이 두 사건의 결정적 계기가 사장의 조카이자 편집국의 노처녀 베테랑 직원인 미스 염의 겨드랑이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①최근 몇몇 내 달갑잖은 일들은 모두 그 미스 염의 겨드랑과 관련이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미스염의 겨드랑이 나를 아주 참을

3) 이청준,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열림원, 2001, 66쪽.(이하 본문에 쪽수만 기재함.)

4) “한때 7만부를 돌파했던 『사상계』는 발행인의 교체를 전후하여 경영난에 봉착, 납본용만을 찍어내면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탈바꿈하는 잡지계』, 『동아일보』, 1969.4.11, 5면.)이다.

5) 김성경, 『반역의 상상력』, 『상허학보』, 상허학회, 2016. 318~319쪽. 환상층위의 서사는 ‘나’가 환상 속에서 신문관에게 체포되어 취조를 받는 이야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억압과 그로 인한 국민의 반역의 공포를 형상화하고 있다. 현실층위의 서사는 《새여성》과 여자대학 앞의 카페를 배경으로 개발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6) 주인공화자인 ‘나(이준)’는 1년 전 진보적 정론지인 내외를 그만둔 후 여성지인 《새여성》에 들어갔으나 한 달쯤 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 소설은 ‘나’가 잡지사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을 재고하라는 국장의 권유에 따라 10일 동안의 거취를 생각할 시간, 혹은 결정을 유예할 시간을 얻어 여자대학 앞의 허숙집과 세느라는 카페를 오가며 소일하는 10일간의 기록이다. 소설은 프롤로그, 1일 1장씩 총 10장, 그리고 1년 후 다시 여대 앞을 방문한 소회를 담은 에필로그로 구성된다. 10일의 기록은 매 장마다 현실층위의 서사와 환상층위의 서사가 교차된다.

수 없게 만든 날이면 내가 두고 망설이던 일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곤 하였다. 회사를 그만두려 마음먹기 시작한 날도 그랬고, 퇴직 의사를 비치고 나서도 계속 망설임만 일삼다 국장에게 드디어 정식 사의를 전하고 이런 식의 유예 휴가로 잠정 타협을 지었던 것도 바로 그 미스 엄의 겨드랑이 본 날이었다.(…)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그런 결정이 있던 날은 또 신문관 사내를 만나거나 그 진술에 모종의 중대한 매듭을 짓게 되곤 한 일이었다.(152쪽)

②**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미스 엄 때문에, 미스 엄의 그 털 없이 너들너들 언제나 땀에 찌들어 있는 겨드랑이 때문에 《새여성》사를 그만둘 생각을 시작했고, 결국은 그 생각대로 일을 밀어붙이고 만 것이다. 그리고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미스엄의 겨드랑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 생각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좌석 버스 안에서 나는 그 신문관 사내를 처음 만났던 것이다.(64~65쪽)[강조는 인용자. 이하동일]

《새여성》에 대한 ‘나’의 불만은 소비지향적인 편집방향, 사장의 기만적인 연설 등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측에 대한 들끓는 불만을 하나의 결단, 결정적 행위가 가능한 비등점까지 끌어올린 것은 미스 엄의 겨드랑이다. 미스 엄에 대한 혐오가 사직 결단의 계기이고 그와 맞물려 환상 속에서 신문관이 출현함으로써 혐오가 삶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음을 화자(話者) 자신이 재차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혐오는 이제까지 분석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 소설에서 혐오는 얼핏 일종의 서사적 균열 혹은 사소한 서사적 실패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스 엄에 대한 혐오는 《새여성》사에 대한 ‘나’의 불만이 담지하는 현실 비판의 타당성을 침해하면서 그것과 무매개적으로 화자에 의해 작위적으로 접합된다. 위의 인용①②의 ‘이상한 일이었다.’ ‘불가사의한 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등의 수사가 이를 반증한다. 또한 이 혐오는 화자가 그에 앞서 제기한 객관적 비판과 등위(等位)에서 작동

하지 않는, 편견과 착종된 왜곡된 감정이다. 거기에는 불유쾌한 신체적 감각과 결부된 감정 과잉의 기미, 나아가 감정을 유발한 대상에 대한 편견과 왜곡의 혐의까지 내재해 있다. 미스 염의 겨드랑이에 대한 혐오는 타자와의 신체적, 감각적 부딪침에 의해서 결정적 행위를 촉발시킨 에너지이지만, 그 에너지원(源)에는 《새여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뿐 아니라 주체의 편견과 왜곡과 같은 부정적(negative) 시선 또한 착종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미스 염에 대한 주인공화자의 혐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남성 지식인주체, ‘나’의 이런 젠더 차별적 관점과 감정은 이 서사의 핵심사건인 퇴직 결심(현실충위)과 신문관의 출현(환상충위)의 본질적 계기라는 점에서 사소한 서사적 실패나 균열로 치부하고 분석대상에서 제외해 버릴 수 없다.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독신 직장여성에 대한 극단적 혐오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격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불편한 서술에 주목해야 한다.

2.1. 개발주의 시대, 언론의 상업화에 따른 셸러리맨 기자의 탄생

이 문제적인 혐오감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가 미스 염의 겨드랑이에 대한 혐오감이 폭발하여 《새여성》을 사직하게 되기까지의 정황을 되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로 하여금 《내외》에서 《새여성》으로 옮긴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새여성》에 대한 불만 이유에는 미스 염의 겨드랑이 외에도 《새여성》의 편집 방향과 사주인 염 사장의 연설 취미가 있다.

‘나’는 대중의 소비욕망, 물질주의, 신분 상승욕망에 영합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새여성》의 편집 방향을 비판한다. 하지만 그런 편집 방향이 자신이 “그곳으로 옮겨온 것을 별스럽게 후회할 이유는 못 되었다.”(69쪽)라고 하면서 더 큰 이유는 염 사장의 연설 취미라고 한다. 염 사장은

근무 시간 후 한두 시간씩 편집회의라는 명목으로 지겨운 연설을 하는 버릇이 있다. 연설의 골자는 ‘전진 전위적이고 선구적인 우리 《새여성》의 편집 방침 쇄신’과 ‘발행 부수 10만 돌파 달성을 위한 재결의’와 ‘사원 상호간 또는 상하간의 가족적인 분위기 진작’ 및 ‘적자 모면을 위한 경영 합리화에 따른 사원 처우의 점진적인 개선 약속’이다.(70쪽) 그런데 주인 공화자에 의하면, 이 모든 ‘말’들은 실상과는 유리된 허사일 뿐이다. 예컨대 아무리 직원들이 새 아이디어를 짜내도 사측에 의해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언제나 똑같은 편집 방향이 그러하고 10만부를 돌파한 지 오래임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10만부의 구호가 그러하다. 무엇보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가족적 분위기의 강조와 적자 모면을 위한 경영합리화에 따른 사원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의 허위성이다. 광고 수입 400만원은 차치하고 지대(誌代)만으로도 수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측은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사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적자상태에 대한 가족적 양해를 앞세워 사원 처우 개선(급료인상, 유급휴가)에 대한 ‘약속’의 실현을 자꾸 연기하는 것이다. 급료 인상 ‘약속’이 계속 연기됨으로써 ‘나’는 “완연한 수모감과 노기까지 느끼게 되고” “점점 그 연설을, 염사장을 견딜 수 없게” 된다.(73쪽)

이러한 염 사장의 연설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주의 및 생산성담론, 그리고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동원담론과 동일한 회로에 놓여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전체주의 담론이 민족주의(nationalism)라면, 《새여성》이라는 회사 차원에서의 전체주의담론은 가족주의인바, 둘 다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동원의 논리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때 염 사장의 연설은 실제 《새여성》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사실적 반영인 동시에, 당대 지배 담론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해석될 수 있다. 염 사장의 연설을 박정희 정권이 주장하는 근대화담론의 알레고리로 입을 때 사직(辭職)은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전면 거부하고 저항하는 ‘불온한’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 사장의 연설에 대한 불만에

서 비롯된 사직 결심이 억압적 권력기구(중앙정보부)의 상징인 신문관⁷⁾이라는 환상적 존재를 소환하는 정치적 상상력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렇게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총동원의 허위성, 그리고 개발담론과 생산성담론에 대한 화자의 저항이 앞서 말했듯이 미스 엄에 대한 혐오를 통해서 분출된다는 것이다. 사측에 대한 불만이 미스 엄에 대한 혐오를 계기로 사직으로 이어지는 대목은 두 곳이다. 하나는 최초의 퇴직 결심(현실충위)과 이와 맞물린 신문관의 출현(환상충위)이다. 다른 하나는 최초의 결심 후에도 망설이다가 국장에게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10일의 유예기간을 받는 것(현실충위)과 신문관의 선고(환상충위)이다.

‘나’가 최초로 사직을 결심하게 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장의 연설을 대행한 국장 역시 새여성사가 적자라고 기만하며 임금 인상 ‘약속’을 또 어기자 ‘나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과 요의(尿意)를 느낀다. ‘나’가 요의를 해결하고 오니 회의는 끝나 있고 직원들은 모두 숨죽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더위와 침묵에 질식할 것 같은 공간 속에서 미스 엄 한 사람만은 여전히 그 선풍기 바람 앞에 시원스럽게 겨드랑이를 말리고 있었다. 나는 내 기분을 그렇듯 답답하게 한 장본인이라도 찾아낸 듯 그녀가 새삼 저주스러워지기 시작했다.(83쪽) “그러니까 내가 그 《새여성》사 취업 이후 부단히 후회를 하고 필경 무언가를 잘못 선택한 듯한 오랜 시달림 끝에 정말로 그곳을 그만두자 최초의 구체적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미스 엄의 그 겨드랑이 때문이었다.”(83~84쪽) 이 대목만을 놓고 보면, 기만적인 사측의 행태에 대한 ‘나’의 분노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인 엄 사장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엄사장의 조카, 미스 엄의 겨드랑이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노갑이을의 양상을 띤다. 소

7) 『쏟아지지 않은 자서전』에 산재(散在)된 신문관의 정체를 암시하는 정보들은 60년대 중후반의 정치사회적 현실과 밀착되어 있다. 5.16쿠데타 세력의 군인이자 반역죄의 피의자를 감시·수사·체포·신문하는 인물인 신문관은 1960년대 반공동원의 주역이었던 중앙정보부(의 수뇌)를 표상한다.(김성경, 앞의 글, 310~312쪽.)

비지향적인 편집방향이나 과도한 성과주의의 강요, 혹은 정당한 보상의 부재와 같은 사측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미스 염의 거드랑이에 대한 ‘혐오’라는 사소하거나 부당한 감정으로 바뀔으로써 사직이라는 결정적 행위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의 성격과 그 대상의 전이는 무엇 때문일까? 여성의 거드랑이에 대한 혐오의 “끼어들”은 내포작가 스스로 ‘이상하다, 불가사의하다’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서사적 개연성을 상실한 듯 보인다. 때문에 얼핏 서사적 실패, 혹은 이청준 특유의 트릭인 가장(假裝)과 은닉의 방법론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스염의 거드랑이에 대한 ‘나’의 혐오는 이데올로기적 자기 폭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이 폭로되고 있는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사주인 염 사장에 대한 불만이 미스 염에게 전이되게 만든 최소한의 근거를 살펴보자. 미스 염은 《새여성》사의 유능한 직원(연예부장)이자 사장의 조카이다. 이들은 “사장과 직원 이외의 관계로 서로를 대하는 선부른 것”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스 염의 사장과와의 관계는 어딘지 모르게 그녀의 행동을 당당하게 만들고 있는 느낌”(75쪽)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절친한 친구이자 직장동료인 임 갈태와 ‘나’는 그녀를 사주의 측근, 고용주의 일원으로 여긴다. 예컨대 임갈태는 가불을 거절당하자 “너의 숙부는 우리 사원들을 모조리 개로 생각한다. 어때, 내가 개로 보이는지 찬찬히 한번 봐라.”(79쪽)라고 미스 염에게 폭언을 퍼붓는다. 이렇게 임갈태가 “애먼”(79쪽) 미스 염에게 분풀이 하는 장면은 그녀를 동료로서보다는 사주의 측근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미스 염에게 향하는 ‘나’의 혐오와 임갈태의 폭언이 발생하는 공통 원인이 정당한 경제적 처우와 인격적 대우(사원 복지)를 해주지 않는 사측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다. 이는 1960년대 중반의 언론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다. 1960년대 이전까지 사회적 불의에 맞서온 언론인들은 지사(志士)로서 사회적 존경을 받았다. 신문사 사주는 현역 언론인이거나 언론인 출신으로서 경영의 목적이 이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생활고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지만 사주와 기자의 관계만큼은 동지적 관계였다.⁸⁾ 그런데 5·16 군사정부가 언론의 정치사회 비판의 기능을 약화하는 동시에 언론의 기업화를 유도(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 금융지원 등)하는 두 가지 방향의 언론 정책을 펼쳤다⁹⁾ 이에 따라 언론은 상업화했고 언론사사주와 기자의 관계는 지사적 동지의 관계에서 사장과 쉐러리맨의 관계로 변화했다. 이는 점진적인 기업화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1964년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언론윤리위원회법 과동과 1968년의 신동아 필화사건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 두 사건은 언론인의 직업의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¹⁰⁾ 한편, 이 소설의 배경이 된 66-68년 무렵에는 64년의 한일회담반대시위 때 학생들에게 시위의 사상적 베이스를 마련해 주었던 사상계가 몰락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정권의 집요한 파괴공작과 언론 통제라는 정치적 원인을 꼽을 수 있다. 둘째로는 대중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독서시장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독서 시장에서는 여원 주부생활 등의 여성지, 선데이서울 등의 주간지와 같은 상업지가 급부상했다. 하지만 언론사가 급격하게 상업화, 기업화하여 급속도로 이윤을 축적해나가고 사세를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론사의 재정적 성장이 언론인의 경제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¹¹⁾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작가의 분신인 ‘나’가 《내외》(사상계)에서 《새여성》(여원)으로 직장을 옮긴 후 《새여성》에서 겪는 갈등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직접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나’와 임 갈태의 사측에 대한 갈등의 근원에는 급변한 언론계 상황 즉 언론사의 기업화, 상업화와 그와 맞물린 기자의 위상변화, 그리고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경제적 처우

8) 이정훈·김균, 『한국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쉐러리맨화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60호, 한국언론학회, 2006, 62쪽

9) 강상현, 『1960년대 한국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 백산서당, 1999, 157쪽.

10) 이정훈·김균, 앞의 글, 60~67쪽.

11) 위의 글, 68쪽.

및 복지의 문제가 놓여있다. 이는 <4.19와 5.16>세대인 ‘나’가 지사형(志士型) 언론인에 가까운 《내외》 사람들의 엄숙 진지함에 공명하면서도, 대중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독자층이 변화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시대착오를 비판하고 《새여성》으로 이직했을 때 새롭게 봉착하게 된 질곡이다. ‘나’가 한사코 《새여성》 사람들을 기자가 아니라 직원, 사원으로 지칭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듯이, 《새여성》사로의 이직은 지사형(志士型) 기자에서 ‘샐러리맨’형 기자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개인적 삶을 보다 쉽게 상황에 적응시키려는 영민한 계산성”(126쪽)이 작용했을 터이다. <4.19와 5.16>세대인 ‘나’는 대의와 명분 대신에 생계와 직업의 안정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현실 타협을 모색했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아서 새롭게 맞닥뜨린 노사갈등으로 인해 주체는 또다시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꺼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노사 갈등은 젠더 갈등과 교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하고도 복잡한 양상을 띤다. 정당한 보수와 시원 복지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 지연되는 데에 대해 분노하는 사원들은 대개 남자들이고(73쪽), 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사원들은 “‘약속’ 따위는 아무리 연기되어도 상관없다.”(74쪽) 주인공 화자에 의하면 그 이유는 여성 직원들에게 《새여성》은 현실적 보상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자부심과 보람을 충족시키는 직장이기 때문이다. 염 사장은 이들에게 “한국 여성계를 이끌어 나가는 엘리트로서의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누이 당부해 왔고”(74쪽) 이에 고무된 여직원들은 언제나 자부심에 넘친 얼굴로 업무에 매진해 왔다.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여성이 셋이나 되었고 그 공로로 그녀들은 국장 자리를 제외하고 편집국 편제상의 상좌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남성보다 유능한 직장여성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유능한 독신 직장여성들과의 ‘접촉’은 주인공 화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부대낌을 유발한다. 우선 ‘약속’이 연기되는 것 따위에는 무관심한 채 일에만 매진하는 그녀들은 염 사장의 연설로 표상되는 성과주의의 동

원담론을 내면화하여 실현하는 존재란 점에서 나를 참을 수 없게 한다. 196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서는 개발주의, 성과주의를 기치로 하는 정권의 근대화프로젝트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면서 저돌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나’는 이에 저항감을 갖지만, 동시에 공적 영역에 진입함으로써 주체의 자리를 확보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능한 여성들이 ‘나’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성과주의 논리를 체화하여 능동적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 공적 영역의 경계를 침입해 오고 있는 것이다.

2.2. 전통과 근대의 혼종적 젠더의식과 독신 직장여성 혐오의 정동

주목되는 점은, 작가의 분신인 ‘나’가 일에 매진하는 독신여성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왜곡된 젠더 차별적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① 거기다 내가 그 여성 동무들을 견딜 수 없게 된 것은 이들 대부분이 너 무 일에만 몰두한 탓에 결혼 같은 건 아예 잊어버린 것처럼 늙어가고 있다는 점이였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결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조금도 초조한 빛이 없이 당당하게 나이들을 먹어갔다.(...) 어찌 보면 여자가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매력 없는 일이 없었다. 이건 무슨 깊은 뜻을 없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늙은 처녀들에게선 어떤 결핍감이나 알 수 없는 불결감 같은 것이 느껴져 오곤 했기에 하는 소리다.(74~75)

② 그런데 그런 결핍감이나 불결감과 관련하여 정갈스럽지 못한 분위기를 빚고 다니기로 말하면 도가 가장 심한 것이 미스 염이였다.(...) 터놓고 말해 미스 염에겐 그만큼 역겨운 점이 많았다. 그녀 역시 아까 말한 5년 이상 근속자 그룹에 끼이는 것이 우선 그 하나였다.(...) 둘째로, 이 여자는 지나치게 몸이 비대한데다, 푸르스름하게 튀어나온 잇몸들을 제외하곤 온 얼굴에 늘 흥분한 사람처럼 벌건 혈색을 띠고 다니는 것도 거듭 내 심사를 불편하게 했다. 게다가 그런 허우대 그런 몰골로 연예 부장 자리를 차고앉아서 언제나 일에 취

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그 꼴도 나는 웬지 늘 견디기가 어려웠다.

(...) 자기 책임 바깥 작업 진척도까지 머릿속에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든지, 장기 근속 충성파로서 이 회사의 상후하박 관습에 따라 월급이 다른 사람이 두 배(...) 내게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76~77)

③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미스 염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녀의 거드랑이었다. 그리고 그 거드랑이야말로 내게는 가장 깊은 악연을 낳은 결정적 수렁이었다.

그녀에겐 괴상한 버릇이 있었다. (...) 그녀는 몸이 **비대한** 만큼 누구보다 더위를 견디지 못했고 **땀**을 많이 흘렸다. 그래 그녀는 국장실 것을 빼고는 편 집국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선풍기를 늘 독차지하다시피 하였다.(...) 가위 **전투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열성스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자신이 선풍기를 독차지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 같았고(76~77)

인용①에서 보듯 편집국 편제상의 상좌를 차지한 여성들이 일에만 매진하는 것에 대해 주인공화자 ‘나’가 거부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들이 결혼에 무관심한 ‘늙은 처녀’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에 대한 ‘나’의 혐오는 극단적이어서 그녀들에게서 결핍감과 불결감까지 느낀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주인공화자에 의해 노처녀라고 지칭되는 여성들 중 최고참인 미스 염이 29세로서 이 소설에서 말하는 노처녀는 대략 20대 후반의 여성들이다. 이는 현재가 아니라 당대의 연령 감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바, 1960년과 1966년의 여성 평균 초혼연령은 각각 21.6세와 22.8세이다.¹²⁾ 이 연령에서 한참 지난 ‘늙은 처녀’ 상사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데 대한 ‘나’의 비난은 부도덕한 행위자의 당당함에 대한 혐오와 유사하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여성 상사들의 당당함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염사장의 부도덕성, 뻔뻔함과 유사한 무게로 ‘나’를

12) 통계청 편집부,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6.

짓누르는 것이다. 아니, 독신여성 혐오가 퇴사의 결정적 이유라는 점에서 전자가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늙은 처녀’에 대한 ‘나’의 비난은 일정 연령 이상의 여성은 결혼해서 주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의 내면에서 일종의 젠더 윤리로서 공고하게 고착되었을 때 가능한 진술이다. 독신여성 상사에 대한 ‘나’의 거부감은 여성이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자녀의 출산·양육자이자 남편의 내조자로서의 주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공적 영역이자 남성의 영역인 직장에서 남성보다 더 일에 매진하고 나아가 남성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나’의 독신 직장여성에 대한 혐오감은 1960년대 남성주체가 처한 젠더 환경과 그로 인해 무의식중에 형성된 젠더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녀 성별에 따른 공사(公私)영역 분리와 분업체계의 형성은 근대의 산물이다. 즉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접어들면서 공사영역이 분리되고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직업 활동을 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사, 육아, 그리고 배우자의 내조를 담당하는 성별 분업 체계가 형성되었다. 주부는 서구의 근대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탄생한 것이다. 오클레이는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킨 가장 극적인 결과로서 여성들 대다수가 전업주부가 된 것을 꼽고 있을 정도이다.¹³⁾ 한국은 1960~70년대의 압축적 근대화시기에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정과 가정주부가 탄생했다. 가정주부는 남편의 돈벌이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생산에서 분리된 가사를 담당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말한다. 1960년대 초부터 언론, 특히 여원과 주부생활 등 여성잡지에서는 주로 사회저명인사인 남성 필자들에게 의해 근대적 성별분업체계를 정당화하는 담론이 형성되었다.¹⁴⁾

13)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15권 1호, 서강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7, 143쪽.

14) 위의 글, 153쪽. 가정주부의 형성과정은 여성이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과정이기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주부담론은 전통적인 현모양처론과 내조론과 결합하였다. 여성지의 필자들은 여성은 현명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게 지성(至誠)과 지순(至純)으로 순종하고 받들며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도록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지는 근대화의 정신적 가치로서 전통을 유통시켰던 것이다.¹⁵⁾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근대적 주부담론의 혼재 속에서 1960년대 한국사회에는 ‘여성=가정’이라는 통념이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1960년대 들어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이 확대되면서 대졸여성의 취업 희망 비율은 높아졌지만¹⁶⁾ 여성을 가정의 영역에만 귀속시키려는 사회적 풍토는 1970년대 중반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¹⁷⁾ 그럴 때 특히 중요시되었던 것은 출산·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위치였다. 1974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남자 대학생들은 배우자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응답자의 41%가 적절한 취업 시기를 ‘자녀 양육이 마무리되는 40~50대’로 답했다.¹⁸⁾ 이러한 경향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의 취업 시기를 ‘결혼 전’까지 또는 ‘결혼을 하

도 하다. 농경생활을 하던 전근대사회에서는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아서 여성의 일도 생산과 분리되지 않았다. 반면에 근대사회에서 주부는 그 정의에서 보듯 생산에서 분리된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사회의 주부는 가정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나마 가사와 육아에 관한 전권을 쥐으로써 자신의 권리가 향상되었다고 착각하고 자족한다.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남성의 보조적, 종속적 위치에 머물렀던 전근대사회의 여성이 처한 조건보다는 자신들의 상황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위의 글 참고.)

15) 최경희, 『1960~1970년대 여성지를 통해 본 근대화의 젠더 양상 연구-『여원』, 『여성상』, 『주부생활』에 나타난 근대화의 혼종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3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327쪽

16) 60년대에 대졸 여성 중 취업희망자의 비율은 70%를 넘었다.(『통계표에 나타난 여대생들의 졸업 후 희망』, 『조선일보』, 1961.3.8.; 이숙녀, 『졸업반 학생들의 이모저모』, 『학생생활연구』, 1966, 23~50쪽.)

17) 최이숙, 『산업화 시기(1961~1987) 성별화된 언론노동시장과 여성 언론인의 경력이동』, 『한국언론학보』 53, 한국언론학회, 2009, 146쪽.

18) 『여성의 취업, 남자대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대학보』, 1974.3.15.

고 자녀를 낳기 전까지라고 한 의견이 우세했다.¹⁹⁾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여성 고용을 촉진시키고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재는 ‘여성의 직장은 결혼의 정거장’이라는 공식을 상당기간 동안 상식으로 만들었다. ‘결혼·출산 후 퇴직’은 일종의 사회적 불문율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인사관리의 수단이었다. 1974년 동아일보 여성기자들의 ‘결혼 후 근속제한 내규 철폐’ 요청, 1974년 동아방송 아나운서의 결혼퇴직 각서 철폐운동, 1974~5년 조흥은행 산업은행 여직원들과 YWCA와 BPW(전문직업여성한국연맹)가 함께 진행한 결혼퇴직 각서 폐지 운동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한 여성의 퇴직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1988년 남녀평등고용촉진법 제정, 노조운동의 등장을 통해서이다.²⁰⁾

이와 같이 1960년대에는 국가와 기업의 제도와 정책, 사회적 인식이 공고하게 맞물려 상호작용함으로써 여성이 공적 영역에 안정적으로 진입해서 독립적·지속적으로 직업 활동,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부정되었다. 따라서 직장을 ‘결혼의 정거장’이 아니라 평생직장으로 여기는 독신직장여성이란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기 쉬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젠더 환경에서 독립적인 개인성이나 사회생활 참여를 주장하는 유능한 여성들은 여성성을 상실하고 남성화된 여성, 비정상적으로 간주되었다.²¹⁾ 『씌여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일에만 몰두한 탓에 결혼은 아예 잊고 당당하게 나이를 먹어가는 ‘늙은 처녀들’에 대한 ‘나의 혐오는 결혼적령기 이후에도 주부가 아닌, 독신직장여성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고 배제하려는 이러한 당대의 젠더환경에서 배태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젠더환경과 젠더이데올로기에 내재된 불평등과 차별은

19) 표경희·안덕자, 「졸업반 여대생의 실태분석-서울시내 여대생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8권, 1971; 표경희·오인호, 「본교 졸업생의 취업동태에 관한 조사」, 『학생생활연구』 10권, 1974(최이숙, 앞의 글, 146쪽에서 재인용)

20) 최이숙, 앞의 글, 146~148쪽.

21) 김우중, 「특집 새해 여성에게 주는 충고 30장」, 『여원』, 1967.

자유와 평등과 같은 근대적인 민주적, 시민적 가치와 상충된다. 『씹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작가의 분신인 ‘나’는 한편으로는 근대적인 민주주의 교육의 세례를 받았으며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추구하는 비판적 지식인이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당대의 가부장적 젠더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는 남성주체이다. 내면화된 젠더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늙은 처녀들’에 대한 ‘어떤 결핍감이나 알 수 없는 불결감’은 민주적 시민적 주체로서의 ‘나’의 비판적 합리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알 수 없는’ 감정이다. 비판적 합리적 이성의 소유자인 ‘나’는 독신 직장여성을 결핍되고 오염된 존재로 느끼는 데 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회사의 독신여성들에 대한 ‘알 수 없는’(합리적 근거가 없는) 혐오를 최고참인 미스 엄의 비대한 신체에 대한 혐오로 치환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앞의 인용①에서 《새여성》의 윗 자리를 차지한 독신여성들에게 근거 없이 덧씌워진 결여와 불결의 이미지는, 인용②와③에서 보듯이 이제 미스 엄의 비대한 신체, 불결한 겨드랑이와 땀을 통해서 그 구체성을 부여받으면서 실제의 신체적 결핍과 불결로 이미지화되는 것이다. 인용②와③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여성의 일에 대한 열의와 능력이 불결과 결핍 등의 부정적 이미지와 결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일에 취해 바쁘게 돌아가고, 자기 책임 바깥의 작업 진척도까지 꿰고 있는 미스 엄의 유능함은 지나치게 비대한 신체와 겨드랑이 땀과 결합하여 부정적으로 이미지화된다. 또한 미스 엄은 전투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드러내 놓고 땀을 말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는 서술에서 여성의 일과 겨드랑이, 땀의 인과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 관계를 좀 더 외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나’에 못지않게 미스 엄을 싫어하는 절친한 친구 임 갈태의 다음과 같은 저속한 비난이다. “저 녀는 멘스도 없는 모양이야, 저렇게 땀을 흘리구. 다른 데로 나갈 것이 모조리 땀이 되니까 그렇지.”(79쪽) 여기서 땀과 생리(멘스)는 등위적인 교환관계에 있다. 생리는 가임의 상징이며, 앞에서 분석했듯이 미스 엄의

땀은 비대한 신체뿐 아니라 열성적인 업무수행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갈태의 험담은 독신여성의 열성적 업무 수행이 여성으로서의 생리적 활동의 포기를 담보로 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나’가 독신여직원들의 열성적 업무 태도를 혐오하는 이유가 결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는 진술과 동궐에 있다.²²⁾ 이와 같이 가부장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남성주체의 시선에 의해 일에 매진하는 독신여성은 여성에게 주어진 결혼과 임신, 육아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불구적 존재, 열등하며 불결한 존재로 왜곡된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경제행위의 주체로서 활동하며 독립적인 개인성이나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독신여성들은 여성성을 상실하고 남성화된 여성, 비정상으로 간주되던 당대의 왜곡된 젠더 이데올로기의 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늙은 처녀’들이 가정이라는 여성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나’의 불쾌감은 그녀들이 남성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생겨난 이면(裏面)의 위기의식과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감정이다. ‘나’가 직장인 《새여성》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최악의 원인은 “일에 너무 몰두한 탓에 결혼 같은 건 아예 잊어버린 것처럼 늙어”(74~75쪽)기는 여성동료들이다. 화자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버티게 해준 존재는 절친한 남성동료인 임갈태라고 한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일에 내밀려 훨씬 이전에 벌써 《새여성》사를 쫓겨나고 말았을지 모른다.”(77쪽)라고 한다. 이 진술에서 주목되는 점은 ‘쫓겨나다’라는 표현이다. 이 서술 이전까지 ‘나’는 유능한 독신여성들에게 느끼는 혐오감 때문에 회사생활을 견디기 힘들다고 서술해왔다. 그럴 때 회사생활을 방해하는 혐오감의 유발자는 외부의 존재이지만, 엄밀하게 말해 혐오감은 ‘나’의 내적 문제이기 때문에 퇴사(退社) 여부는 화자자신의 선택에 있었다. 그

22) 임갈태는 나와 성격적 차이는 있지만 회사의 소수 남자 직원으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것을 공유하는 절친한 동료이다. 특히 젠더의 측면에서 ‘나’와 임갈태는 같은 입장과 반응을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위의 인용 중 ‘듣기 거북한 혐구’라는 말은 표현의 과격함에 대한 민망함을 표하는 수사일 뿐이다.

런데 이 ‘쫓겨나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 주도권이 상대측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암시된다. 상대측 즉 ‘나’를 쫓아내는 주체는 일중독 독신여성들이다. 이처럼 혐오는 단순한 감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면에 생존경쟁과 결부된 헤게모니 투쟁을 동반하고 있다. 독신 직장여성에 대한 ‘나’의 혐오는 공적 영역을 침범해 오는 여성에 대한 경계, 두려움과 착종된 감정인 것이다.

이러한 독신 직장여성에 대한 ‘나’의 혐오는 미스 염의 겨드랑이와 땀을 통해 매우 구체적 감각적으로 묘사되는 특징이 있다.

그녀의 겨드랑이에는 털이 나 있지 않았다. 앞서도 말했지만 털이 없는 대신 살집이 깊고 또 땀이 많았다. 너들너들 거무스레한 살 주름에는 늘 찢든 찢든 특한 땀기가 젖어 있었다. 미스 염의 선풍기는 언제나 그 땀기를 말리는 데 사용되었다. (...) 우리는 수시로 그 미스 염의 털 없는 겨드랑 땀과 살 주름을 목도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곤 한 것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역겹고 견디기 힘든 것인지는 이제 더 이상 상상이나 맡겨야 할 일이지만 말이다.(76~77쪽)

위의 인용에는 타자의 겨드랑이 주름과 땀을 목도해야만 하는 주인공 화자의 피로움과 혐오감이 감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너스바움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적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혐오감이 발생한다. 체액(피, 침, 땀 등) 똥 등 인간이 완결된 존재가 아님을 드러내는 경계의 징후들에 대한 공포의 감정이 혐오이다.²³⁾ 통상 가려져 있어야 할 신체부위가 노출될 때 인간은 혐오를 느낀다. 겨드랑이와 땀이라는, 존재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타자의 신체와 접촉한 주체가 느끼는 역겨움은 원초적이다. 주체의 혐오는 매우 강력하여 회사를 그만둘 결단을 내리게 하고 환상 속에서 신문관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는 화자(話者) 스스로도 ‘불가사의하고’ ‘이상한’ 일이라고 할 만큼 해석이 불가능한 원초적

23)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238쪽.

인 감각적 반응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스 엄의 겨드랑이와 땀에 대한 주인공화자의 혐오는 마수미가 말한 정동에 가깝다. 마수미에 의하면 정동은 문화화되기 전의 신체의 반응이다. 정동은 신체가 외부 세계와 만나 촉발시키면서 촉발되는 활동이다. 신체가 외부세계와 만나 일으키는 원초적 떨림이 아직 의식이나 문화의 회로에 잡히지 않고 직접 몸으로 내려가 형성되는 순간적 느낌이 정동이다. 그러므로 정동은 감정보다 감각에 가깝다.²⁴⁾ 『씹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너들너들 거무스레한 살 주름에는 늘 찢든찢든한 땀기가 젖어’ 있는 독신여성 상사(上司)의 몸에 의해 촉발되는 불유쾌한 감각은, 바로 아직은 의식이나 문화 회로에 잡히지 않고 몸에 의해 형성되는 감각적인 느낌인 정동에 해당한다. ‘나’가 매일 마주해야 하는, 독신여성들이 조직의 상좌(上座)를 차지하는 《새여성》의 근무환경은 이 소설의 시대배경인 1960년대 중후반 한국에서는 ‘아직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젠더담론이나 직장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던, 즉 아직은 문화회로에 잡히지 않았던 그러한 젠더상황인 것이다. 사상계를 표상하는 《내외》의 엄숙주의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여 《새여성》으로 직장을 옮긴 ‘나’는 이제 전혀 예기치 못한 젠더환경에 놓이면서 혐오를 쏟아낸다.

이는 유능한 화이트칼라 독신여성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여성 집단과의 접촉에서 오는 남성주체의 혼란과 불안을 반영한다. 망설이고만 있던 퇴사를 결행하게 할 정도로 미스 엄의 겨드랑이와 땀에 대한 혐오의 파급력은 강력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불가능하여, 혐오로 인한 퇴사 결행은 ‘불가사의’하고 ‘이상한’ 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명백한 것은 엄사장의 연설이 표상하는바 당대의 전체주의적 동원이나 구성원의 희생장요 성과제일주의 개발주의에 대한 저항과 비판보다 더 강

24) 마수미,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 조성훈 역, 갈무리, 2011, 26~37쪽.
이명호, 『문화연구의 감정론적 전환을 위하여: 느낌의 구조와 정동경제론 검토』,
『비평과 이론』 20권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5, 113~138쪽

력하게 주체를 사로잡고 부대끼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유능한 독신여성에 대한 혐오의 정동이라는 것이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여성 혐오는 그리 낮은 감정은 아니다. 1930년대의 신여성, 1950년대 자유부인, 196,70년대 댄스홀단속과 춤바람주부에 대한 혐오 등 여성 혐오는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혐오대상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 진입하지 못한 아웃사이더, 혹은 일탈자였다. 하지만 『꺼여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주인공화자의 혐오 대상인 화이트칼라 독신여성은 남성보다 더 저돌적으로 공적 세계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 이 소설에서 화이트칼라 독신여성들의 등장은 60년대 중후반 언론의 상업화와 여성지의 급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론의 기업화로 언론시장은 외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했다. 이에 따라 이후 어느 시기보다 수습기자 선발인원이 많았는바, 성별 제한 없는 공개채용제도 덕분에 대졸여성들의 언론계 진출이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취업 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못했던 대졸 여성들에게 신문사는 사회진출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켜줄 거의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공간이었다. 한편, 산업화에 따라 판매부수와 더불어 광고가 주 수입원이 됨으로써 언론사들이 소비의 주체인 여성독자집단의 기호에 맞춰 신문(여성·가정란 지면 확대) 과 잡지(여성지 창간)를 제작하게 됨으로써 여성기자의 수요가 증대했다.

이렇듯 60년대부터 여성 수습기자의 비율은 증가됐지만, 앞에서 말한 젠더 차별적 환경 때문에 근속기간은 짧았다. 1960년대에 언론계에 진출한 여성 언론인은 3년 이내에 50% 정도가 퇴직했고 10년 후에는 75% 정도가 언론계를 떠났다. 남성과 달리 퇴직 이후 대부분 이직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갔다. 또한 1960년대에 평가자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여성의 수는 85.7%(80년대 20%)였고 부장이상 고위직 진출자는 1960년대 수습기자로 입사한 경우 27.5%(70년대 58.1%)였다.(이는 60년대에 고위직에 진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시기에 수습기자로 입사해서 이후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의 숫자이다.) 언론계 장기근속 여성은, 앞에서 말한 퇴

직각서와 같은 인사차별 때문에 결혼, 출산 때마다 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 커리어를 이어나간 소수의 기혼여성, 그리고 여성의 직장을 ‘결혼의 정거장’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결혼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하지 못 한 결핍된 존재’로 간주되던 독신여성이었다. 그들 중 극소수가 정치·경제·사회부가 아니라 변방부서로 일컬어지던 여성 관련 부서나 여성의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²⁵⁾

이상에서 보았듯이 1960년대에 화이트칼라 여성들²⁶⁾은 제도적, 이데올로기적인 젠더차별 상황 속 놓여있었다. 특히 여성혐오는 이들의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실제적인 장벽이었다. UN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면서 이 무렵부터 한국에서도 여성담론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그 일환으로 1975년에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아카데미총서』를 발행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여성학 관련 자료를 모은 『아카데미총서』의 주요 내용은 남성들로부터 적대시되는 유능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였다.²⁷⁾ 이 논의들은 그 요인으로서 여성떨시사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성 떨시는 여성혐오와 동의어이다.²⁸⁾ 『쏟아지지 않은 자서전』에는 바로 그러한 유능한 화이트칼라여성을 적대시하는 남성주체의 혐오의 정동이 포착되어 있다.

25) 60년대 여성언론인의 고용현황은 최이숙의 앞의 글, 138~153쪽을 정리한 것이다.

26) 1960년대 중후반에 대졸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직종은 교원 은행원 기자 정도였다. 이들은 전체 경제활동참가 여성 중 대략 2~3%(교원1.0% 사무직 1.4%)를 차지했다.(1965년 인구총조사 직업별 여성 취업자) 참고로 60년대 중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9%였고, 이 중 일과 가정이 분리되지 않은 전근대적 노동 조건에 놓여있던 농업종사자가 60%에 가까웠다.(강이수,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연구』 7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7, 9~10쪽)

27) 이정숙, 『‘개발주의서사’의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연민』, 『여성문학연구』 제3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64~65쪽.

28) 우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15, 12쪽. 우에노 치즈코는 misogyny의 번역어인 여성혐오란 쉬운 말로 여성떨시이며 성별 이원체의 젠더 질서 깊은 곳에 존재하는 핵이라고 말한다.

3. 젠더 갈등에 대한 대응 방식

3.1. 왜곡된 섹슈얼리티 : 젠더갈등과 남성

‘나’를 포함한 직급이 낮은 남자 직원들은 왜곡된 섹슈얼리티와 뒤엉킨 공격성을 통해서 이러한 젠더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한다. ‘나’와 절친한 동료 임갈태는 사장의 연설 취미에도 무감각한 무신경하고 대범한 성격이다. 하지만 그는 유독 젠더 갈등에는 민감해서 여직원들에게 왜곡된 섹슈얼리티로 남성의 우월감을 표출하고자 한다. 주인공화자 ‘나’가 새여성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티게 해준 존재가 갈태라는 서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개고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이를 잘 보여준다. 갈태와 ‘나’는 개고기집 단골로서 이들에게 ‘개고기를 먹었다’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를 띤다. 그것은 ‘보신탕을 먹었다’라는 뜻과 동시에 ‘성매매를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주인공화자는 보신탕은 직접 언급하지만 성매매는 애둘러 표현한다.) 이 중의적 표현이 생긴 계기는 ‘나’와 갈태가 종로3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출근한 날 여직원들과의 대화이다. 무슨 눈치라도 채 듯 꼬치꼬치 캐묻는 여직원들의 추궁에 불안해진 갈태가 “그래 나 어젯밤 개고기 먹고 왔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 일이 있던 후에도 갈태와 나는 이따금씩 함께 그 ‘개고기’를 먹으러 다녔고 그런 날이면 오늘도 개고기를 먹고 왔노라 여성 동무들을 “놀려대곤” 한다. 대강 상황을 눈치 채 여직원들이 징그럽다고 하면 갈태는 “진짜 개고기 맛도 모르는 년들이!”라고 ‘호령’이다.(78쪽)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종로3가(중삼)는 해방 후부터 형성되었던 대규모 성매매 집결 지역이다.²⁹⁾ ‘나’와 갈태는 이따금 칩잡촌 중삼에서 함

29) 서울의 종로3가(중삼) 일대와 동대문구 창신동 그리고 서울역 앞 양동 중구 목동 등 일대는 1960년대 이미 서울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로 유명세를 떨쳤다. 1959년 5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이미 ‘오래 된 사창가인 종로3가(중삼)’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서울시는 1968년 9월~10월에 일명 나비작전을 펼쳐 1차적으로 종로3가 사

게 성 매수 행위를 하는데 이에 대한 화자의 서술 태도는 이중적이다. 자신들의 성 매수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불편해 하지만 성 매수 자체는 남성으로서 당연한 행위로 여기는 것이다. 나아가 ‘개고기 맛도 모르는 녀들이!’라는 갈태의 호령은 성 매수 행위가 여성은 할 수 없는 남성만의 전유물이고, 이 사실 자체가 마치 남성의 우위를 증명이라도 한다는 듯한, 왜곡되고 착종된 성의식과 우월의식을 드러낸다. 이는 중류 이상의 청년남성에게만 결혼 전 성행위가 허용되고 젊은 여성과 대학생이 아닌 중산층 이하의 청년에게는 금기시됐던 당시의 젠더 차별적, 계층 차별적 성관념을 반영한다.³⁰⁾ ‘나’와 갈태는 전투적으로 일에 전념하는 화이트칼라 독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집단의 출현으로 인한 위기감을 왜곡된 섹슈얼리티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3.2. 입 없는 몸 : 젠더 갈등과 여성주체의 침묵

『쏟아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새여성》의 사주 염사장은 오로지 연설로만 존재한다. 염사장은 외모나 행동, 타인과의 대화에 대한 묘사가 완전히 생략된 채 주장을 일반적으로 전하는 스피커로서만 등장한다. 이러

창가 정리에 나섬으로써 해방 후 23년 동안 서울의 대표적 사창가였던 종삼이 첩 폐되었다.(오유석, 『동대문 밖 유곽-‘정량리 588’ 공간 구성의 역사와 변화』, 『서울학연구』 3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9, 104~111쪽; 김희식, 매춘공간의 포함과 배제, 서울시립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187쪽)

30) 중류 이하의 청년은 충분한 교양이 없기 때문에 문란한 성행위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혼전 성행위가 허용되지 않았다. 젊은 여성에게는 여전히 전근대적 정조관념이 강요됨으로써 혼전 성행위는 금기시되었다.(임지연, 『1960년대 초반 잡지에 나타난 여성/청춘 표상-『사상계』와 『여원』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30쪽). 당시에 여성지는 서구적 외형(8등신 몸, 화장, 패션)과 전통적, 고전적 내면을 여성이 갖춰야할 이상적 가치로 담론화했다. 고전적 내면 중에서 가장 중요시된 것은 정조관념이다. 60년대에는 근대적인 전업주부의 개념이 도입되는 동시에 여전히 전근대적인 현모양처와 정조관념 중시되었다. 이러한 전근대와 근대의 혼종적 젠더관념은 여성에게 이중적 억압으로 작용했다.(최경희, 앞의 글, 324쪽)

한 서사적 특징은 소통이 불가능한 절대 권위자로 그를 이미지화한다. 염 사장이 ‘몸 없는 입’으로 존재한다면, 미스 염은 ‘입 없는 몸’, 로고스 없는 신체로 존재한다. 미스 염에게는 상대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자신을 옹호할 입이 없다. 그녀는 임갈태의 극단적 모욕이나 ‘나’의 공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 젠더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다른 직원들의 대응도 미스 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입 없는 몸’은 그녀들이 이 무렵 여성혐오에 직면하여 대항담론을 형성하지 못했던 것과 관계된다. 업무에서는 유능함에도 여전히 그녀들은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60년대의 한국사회는 정권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의한 압축적 근대화로 인해 전근대성과 근대성이 극적으로 혼재하는 공간이다. 젠더 영역도 이러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당시 여성지는 한편으로는 진보적 여성독자층의 욕망에 부응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의 인터뷰를 실는 등 근대적 여성상을 제시했다. 《새여성》의 편집 방향 역시 그러하다. 또한 사주(社主)인 염사장은 ‘한국 여성계를 이끌어 나가는 엘리트로서의 책임’ 운운하며 직원들을 독려한다. 이런 분위기에 고무되어 《새여성》의 노처녀 직원들은 일에 매진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보았듯이 그녀들이 몸담고 있는 여성지는 전통적, 고전적 내면을 여성이 갖춰야할 이상적 가치로 끊임없이 재생산했다. 지고지순, 순종, 뽀박을 묵묵히 견뎌내는 인내심, 양전함 등이 여전히 여성이 갖춰야할 미덕으로 담론화됨으로써 여성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젠더 규범은 공적영역에 진입한 유능한 여성에게도 암암리에 강요되는 여성성이었다. 그런 점에서 『씩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남성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입 없는 몸’은 당대 화이트칼라 직장여성에 대한 사실주의적 소묘일 수 있다.

4. 나가며: 지식인 남성주체의 후레이아- 현모양처에서 이탈된 하위주체인 독신 직장여성에 대한 공포와 배제

5-60년대에 지식인들을 주 독자층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사상계는 따로 여성 문제를 담론화하지 않았다. 사상계에는 여성에 대해 언급한 글이 거의 없다. 그럴 때 여성은 공적으로는 인간 속으로 포괄되지만 실제로는 인간에서 배제된다. 여성에 대한 담론의 부재는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의식조차 하지 못 할 정도로 차별적 젠더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의 작가의 분신이자 지식인 남성화자 ‘나’의 젠더 측면의 내면상황이기도 하다. 화이트칼라 독신여성과의 일상적 접촉이 유발한 강렬한 혐오정동은 ‘나’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 했던 독신 직장여성에 대한 배제의 심리를 폭로한다. 다시 말하면, 독신여성들이 편집국의 상좌를 차지하는 《새여성》의 젠더 갈등적 관계에서 자신을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남성주체의 공격성, 가해 심리, 남성중심주의적 시선의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스염의 겨드랑이에 대한 ‘나’의 혐오는 사카이 나오키가 말한 자기폭로의 계기로서의 후레이아이다. 사람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말을 건넨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이 후레이아가 열어젖히는 것은 능동과 수동 가해와 피해가 착종된 관계이다.³¹⁾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지식인 남성주체 ‘나’는 구성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개발주의, 성과주의와 정치적 비민주성에 대해 ‘공적으로’ 비판하지만, 그를 결단적 행위로 이끈 것은 내밀하고도 ‘사적인’ 감각적 불쾌감이다. 미스 염에 대한 혐오는 타자와의 신체적, 감각적 부딪침에 의해서 결정적 행위를 촉발시킨 에너지로서, 그 에너지원(源)에는 《새여성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뿐 아니라 주체의 젠더 차별과 왜곡과 같은 부정적인 시선 또한 착종되어 있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독신여성

31) 사카이 나오키, 『정동의 정치학』, 신현아 역, 『문화과학』 87, 2016, 364쪽, 374쪽.

협오의 정동은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성과주의, 개발주의에 대한 저항과 착종됨으로써 더욱 문제적인 정동의 정치학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 이청준, 『선고유예(上)』, 『문화비평』, 1969.
——, 『선고유예(2회)』, 『문화비평』, 1970.
——, 『쓰여지지 않은 자서전』, 『소문의 벽』, 민음사, 1972.
——, 『씌여지지 않은 자서전』, 열림원, 2001.

2. 단행본

- 마사 너스바움, 『협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238쪽.
마수미,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 조성훈 역, 갈무리, 2011, 26~37쪽.
우에노 치즈코, 『여성협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15, 12쪽.
질 들뢰즈·안토니오 네그리 외,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창현 외 역, 갈무리, 2005, 21~138쪽.

3. 논문

- 강이수,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연구』 7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7, 1~35쪽.
권명아, 『비교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정동 연구의 사회정치적 의제: ‘여자 떼’의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7~38쪽.
김성경, 『반역의 상상력: 이청준의 『씌여지지 않은 자서전』의 저항성 연구』,

『상허학보』 47집, 상허학회, 2016, 285~325쪽.

김우중, 「특집 새해 여성에게 주는 충고 30장」, 『여원』, 1967.1

김희식, 「매춘공간의 포함과 배제」, 서울시립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사카이 나오키, 「정동의 정치학」, 신현아 역, 『문화과학』 87, 2016, 364~374쪽

오유석, 「동대문 밖 유곽-청량리 588' 공간 구성의 역사와 변화」, 『서울학 연구』 3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9, 101~135쪽.

이만갑, 「성의 사회적 해조와 가치」, 『사상계』, 1960.8, 222쪽.

이명호, 「문화연구의 감정론적 전환을 위하여: 느낌의 구조와 정동경제론 검토」, 『비평과 이론』 20권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5, 113~138쪽

이정숙, 「『개발주의서사』의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연민」, 『여성문학 연구』 제3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35~90쪽.

이정훈·김균, 「한국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한국언론학보』 50권 60호, 한국언론학회, 2006년, 59~88쪽

임지연, 「1960년대 초반 잡지에 나타난 여성/청춘 표상-『사상계』와 『여원』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11~240쪽.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15권 1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142~182쪽.

최경희, 「1960~1970년대 여성지를 통해 본 근대화의 젠더 양상 연구 - 『여원』, 『여상』, 『주부생활』에 나타난 근대화의 혼종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3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313~331쪽.

최이숙, 「산업화 시기(1961~1987) 성별화된 언론노동시장과 여성 언론인의 경력이동」, 『한국언론학보』 53, 한국언론학회, 2009, 133~160쪽.

Abstract

Male intellectual subject's gender consciousness in Lee Cheong-jun's "Unwritten autobiography"

: Focusing on the "body" image of a single working woman

kim, Seong-gyung

Lee Chung-joon's "Unauthorized Autobiography" is an autobiographical novel based on the late 1960s. This novel criticizes the development dictatorship of the Park Chung Hee regime by crossing the narrative of the reality layer and the fantasy layer. Lee Chung-joon joined <the Sasang-gye> in 1966, and moved to <the Yeowon> in 1967. The novel is shaped by the autobiographical experience of this time through the Naeoe(the Sasang-gye) and the Saeyeoseong(the Yeowon). The main event is the resignation of the Saeyeoseong of 'I', the writer's another self, on the reality level, and the appearance of the questioner on the fantasy floor. The protagonist narrator repeatedly emphasized that the crucial moment of these two events was due to the "strange and unknown" disgust of the Saeyeoseong(the Yeowon)'s veteran employee, Miss Yeom, This reflects the confusion and anxiety of the intellectual male subject coming in contact with a newly emerging female group, a competent single female worker. For me, this disgust is just a momentary affect that is formed by going down directly to the body without being caught by the circuit of consciousness or culture.

Key words : Gender consciousness Affect body image Sasang-gye Yeowon misogyny

- 본 논문은 2018년 7월 25일에 접수되어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